



갯벌에 물든 단풍...순천만 칠면초 세계 5대 연안습지 중 하나인 전남 순천만이 19일 붉은 색 칠면초로 물들어 장관을 이루고 있다. 9월 초부터 붉게 피어나는 순천만 칠면초는 갯벌에 용단을 깔아 놓은 듯 그 빛깔이 곱다. 처음에는 녹색이지만 9월엔 붉은색이 강해지다가 자주색으로 변한다.

/최현배기자 choi@kwangju.co.kr

전남에 덮친 ‘초고령화’ 어두운 그림자

장애인·빈집·1인 가구·노년부양비 등 증가 전국 최고

미래성장동력까지 위축...중앙정부 차원 대책 마련 시급

초고령화의 그늘이 전남을 덮치고 있다. 전국 시·도 가운데 가장 먼저 초고령화 사회(65세 이상 인구가 전체 인구 5분의 1 이상)에 진입한 전남은 장애인, 빈집, 1인 가구, 노년부양비 등의 증가와 같은 여파가 지역사회 곳곳에 미치고 있는 것이다. 당장 해결할 수 있는 사안이 아닌데다 그 대로 돌 경우 지역의 미래성장동력이 위축될 수밖에 없어 전남도의 고민도 깊어지고 있다.

19일 전남도에 따르면 고령, 함평, 곡성, 신안, 구례 등 5개 군민 10명 중 1명 이상이 장애인인 것으로 조사됐다. 고령인구가 늘면서 장애인도 급증하고 있는 것이다. 지난 2015년 말 현재 전남의 장애인 수는 14만1837명으로, 전체 인구(190만8996명)의 7.43%를 차지하고 있다. 7%를 넘어선 곳은 전남이 유일하다. 전북이 6.94%로 그 다음, 강원(6.35%), 경북(6.22%), 충남(6.

01%) 등이 뒤를 이었다.

전남도는 노인인구 가운데 과반이 낮은 급수의 장애인일 것으로 추정하고 있다. 65세 이상 비율이 전국 시·군·구 가운데 가장 높은 고령군(38.5%)이 전남 22개 시·군 가운데 가장 많은 장애인 비율(11.26%)을 보인 것은 당연하다는 것이다. 하지만, 점차 중앙정부가 복지비 부담을 지방자치단체에 전가하고 있는 가운데 노인인구와 그에 동반한 장애인의 증가는 전남도와 22개 시·군 재정을 압박할 것이라는 것이 전문가들의 분석이다.

2015년 인구주택총조사에서도 전남의 이 같은 심각한 수준의 초고령화 영향이

장애인 7.43%	전국 1위
빈집 13.8%	전국평균 2배
1인 가구 30.4%	전국 2위
노령화지수 157	전국 1위

고스란히 드러나 있다. 먼저 전남도내 주택 74만8000호 가운데 빈집이 10만3000호로, 그 비율이 13.8%에 이르고 있다. 전국 비율(6.5%)의 2배를 상회하고 경북(10.9%), 전북(10.8%) 강원(10.4%) 등에 비교해도 높은 수치다.

2010년과 비교할 때 전남 인구 상승률은 가장 낮았다. 2010년 178만5000명에 비해 2015년 179만9000명으로 고작 0.8%(1만4000명) 증가한 데 머물렀다. 귀농·귀촌의 열풍 속에서도 경북(1.1%), 경남(3.3%) 등

에 못미치고 있는 실정이다.

0~14세가 전체 인구의 13.4%, 15~64세가 65.5%, 65세 이상이 21.1%의 비율을 보이면서 노년부양비는 32.2%로 유일하게 30%를 넘었다. 노령화지수 역시 157.0로 나타나 경북(139.3)보다 17.7포인트 높았으며, 경기(69.0)에 비하면 2.2배 이상을 보였다. 1인 가구 비율은 30.4%로, 강원(31.2%)에 이어 두 번째로 나타났으며, 평균 가구원수는 2.36명으로 강원과 함께 가장 적었다.

노인복지 전문가는 이와 관련 “전남도는 물론 중앙정부 차원에서 전남의 초고령화에 대한 대책이 시급하다”며 “초고령화는 타 지역도 불가피하게 맞을 미래이기 때문에 범국가적 차원에서 고령화와 저출산 관련 대책과 시범사업을 실시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유현석기자 chadol@kwangju.co.kr

수서발 고속철도 전라선 운행·KTX 전라선 증편 촉구

안철수 등 국회의원 38명 발의

안철수, 박지원 등 국회의원 38명이 오는 11월 개통예정인 수서발 고속철도(SRT)의 전라선 운행과 KTX 전라선 증편을 본격적으로 촉구하고 나섰다.

국민의당 관계자는 19일, “수서발 고속철도 전라선 노선 허가과 코레일 고속철도

운행 횟수 증편 촉구 결의안”을 박지원 국민의당 비대위원장과 심상정 정의당 대표, 안철수 전 국민의당 대표 등 의원 38명이 공동 발의했다고 밝혔다.

의원들은 “전라선은 경부선과 비교해 공사를 착수한 시기는 물론 운영을 시작한 시기 등과 일일 횟수 등에서 차별과 격차가 심하다”면서 “수서발 SRT에서 전라선이

운행되어야 그나마 형평성이 개선될 수 있다”고 강조했다. KTX전라선 이용객은 지난해 4월 호남고속철도 개통 이후 올해 현재까지 전기 대비 49% 증가했고 연말까지는 60% 이상 늘 것으로 예상되는데도 오는 11월 개통 예정인 수서발 STR에서 전라선이 제외된 것은 불합리하다는 주장이다.

이들 의원은 “국가 균형발전과 국가 경쟁력 강화를 위해서는 특히 고속철도가 지역 간 균형 있게 운행되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박지경기자 jkpark@kwangju.co.kr

“민평과 문화전당 분리 안 돼 농성 아닌 광주 의견 모아야”

문화전당측, 5월단체에 요구

그동안 5월 단체의 옛 전남도청 복원 촉구 점거농성에도 침묵해온 국립아시아문화전당측이 5월 단체의 주장을 공식 반박하는 등 정면 대응에 나서 귀추가 주목된다.

문화전당은 19일 보도자료를 내고 ‘민주평화교류원을 문화전당에서 분리하자는 5월 단체의 주장’에 대해서 “시민적 합의인 문화전당 기본계획을 전면 부정하는 일인만큼 농성으로 해결할 일이 아니라 먼저 광주의 의견을 모아야 한다”고 밝혔다.

5·18 기념재단 등 5월 단체는 “옛 도청 내·외벽에 있던 계엄군 총탄 자국이 현재 페인트에 덮여 지워졌고, 시민군 상황실과 방송실이 철거돼 그 자리에 전시공간과 승강기 실이 들어섰다”며 원형복원을 촉구하며 문화전당에서 천막 농성중이다. 이 때문에 문화전당은 지난해 11월 문을 열었지만 5개 시설 가운데 옛 전남도청 등을 리모델링한 민주평화교류원만 문을 열지 못하고 있다.

문화전당은 이와 관련, “5·18에 관한

어떠한 역사 왜곡이나 흔적 지우기를 한 사실이 없다”며 “옛 도청 본관 총탄 자국 및 상황실·방송실 복원 문제는 2015년 민주평화교류원(옛도청) 관련 공사가 끝난 뒤에야 문제 제기가 이뤄진 사안”이라고 설명했다.

문화전당은 “문화전당 발전과 지역사회의 염원을 감안해서라도 무단점거 농성을 즉각 중단해줄 것”을 주문했다.

하지만, 5월 단체는 “현재 5·18의 상징과도 같은 도청 건물에 남아있는 것은 무엇이나. 누가 지금의 도청 건물을 보고 5·18을 떠올릴 수 있느냐”고 반문했다. 이 단체들은 “지난 6월 문화부 장관 면담 전까지 옛 도청 건물이 예술공간으로 기획됐다는 것을 5월 단체는 몰랐다. 문화전당측이 옛도청 활용방안을 비밀로 했기 때문에, 뒤늦게 문제를 제기했다는 주장은 어불성설”이라고 반박했다.

문화전당 민주평화교류원은 옛 전남도청 본관·별관·회의실, 상무관, 경찰청 본관·민원실 등 6개 건물을 아우른 복합공간이다.

/윤경기기자 penfoot@kwangju.co.kr

/김형호기자 khk@kwangju.co.kr

전인지, 세계 골프 새 역사 썼다

보성 득량중·함평골프고 출신
21언더파 LPGA 에비앙 우승
PGA 포함 메이저 대회 최소타

‘덤보’ 전인지(22·하이트진로)가 남녀 메이저 최소타의 기록으로 에비앙 트로피를 들어올렸다. <관련기사 20면>
보성 득량중·함평골프고 출신의 전인지는 지난 18일 프랑스 에비앙-레-뱅의 에비앙 리조트 골프클럽(파71·6470야드)에서 끝난 미국여자프로골프투어 에비앙챔피언십에서 4라운드 합계 21언더파 263타의 기록으로 우승을 차지했다.

지난해 메이저대회인 US여자오픈에서 LPGA투어 첫 승을 신고했던 전인지는 올 시즌 마지막 메이저 대회에서 다시 챔피언에 등극했다. LPGA 투어 메이저 대회 72홀 최소타 기록도 새로 썼다. 전인지는 평야니(대만)등 4명이 가지고 있



던 LPGA 72홀 19언더파 기록을 넘어, 제이슨 데이(호주)와 헨리크 스텐손(스웨덴)이 세운 미국프로골프(PGA)투어 20언더파 기록까지 갈아치웠다.

/김여울기자 wool@kwangju.co.kr

광주일보 수습기자 원서접수 오늘 마감합니다 ▶모집요강 2면

광주광역시
GWANGJU CITY

더불어시민광주
행복한시작

친환경 자동차 선도도시 광주!

광주의 미래엔진을 달다

- 수소 연관산업 핵심 인프라인 수소융합스테이션 설치!
- 현재까지 전기차 237대, 수소차 24대 보급!
- 2017년부터 전기자동차에 별도 번호판 발급!

52개 3108

2016년 11월 광주에서 전기·수소차 카쉐어링 시범사업이 추진됩니다.